

“

국내 환경기업체들의 중국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일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내 환경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

환경기업 중국진출 지원 강화

국내 환경기업체들의 중국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일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내 환경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개별업체가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 투자계획 등 시장정보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기업간 공유하는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 환경시장 정보센터" 등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환경기술전시관을 기존 운영업체들과 협의해 "한국환경산업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One-Stop 지원센터를 개편될 한국환경산업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중국 환경시설의 주수요자는 공무원이고, 개별기업의 접근보다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더 용이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포럼, 전시·설명회 제공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활용한 환경기초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사업보다

는 국내 기술을 대표할 만한 대형사업으로 12개를 우선 실시하고,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기업체들은 EDCF 지원조건 중 이자율과 차관공여국 구매비율 등은 중국 수요자측에 유리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7년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으로, 차관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기업과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포스코건설 환경부 환경신기술 지정서 획득

포스코건설 기술연구소가 지난 7월 25일 환경부로 부터 자원재활용 기술인에 대한 환경신기술과 관련한 인증을 받았다.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이번 신기술은 포스코건설이 2000년 11월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던 하수슬러지(오니)에 체질 부산물인 슬래그 및 생석회 등을 혼합 건조처리 한 후 모래형태의 입상화 제품(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가능)을 생산해내는 기술이다.

포스코 건설측은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매립장 복

토제, 시멘트 자원화, 산성토양 개량제, 조정용 상토, 녹색토 원료 등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건설은 환경신기술지정과 관련해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4건을 취득함으로써 슬러지 처리 등이 분야에서 한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 친환경 골판지 제조기술 개발

골판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용수를 재처리해 품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골판지제조 공정수 재이용 기술이 개발됐다.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소장 유용호)는 1년여의 연구 끝에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 골판지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메탄가스로 전환하고 유기물과 칼슘을 동시에 제거해 용수의 수질을 높여주는 신공법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를 깨끗하게 걸러 다시 공정에 투입할 뿐만 아니라 종이원료인 섬유소 손실을 방지하는 보류제 등의 약품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그동안 국내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수(용수)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제품 품질 저하는 물론 사용약품의 증가, 각종 설비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구팀은 98년부터 이 기술 개발에 착수, 지난해 동일제지의 생산라인에 시험플랜트를 만들어 테스트 한 데 이어 최근 화승제지와 월산 시범공장을 세워 실험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칼슘(Ca) 제거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배수의 칼슘농도가 제지품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이경해 책임연구원은 "이 공법을 적용한 화승제지

와 월산은 각각 일일 2,500톤의 청수 절감 효과와 연간 3억2,8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또 혐기공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2,348 입방 미터(m³)의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재활용할 경우 2억2,500만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기술개발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동진에코텍,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환경벤처기업 동진에코텍(대표 김정수)은 대우건설로부터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공사 현장의 혐기조 교반기 및 무산소조 교반기의 수주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이번 수주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진에코텍은 최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인증범위는 회사 본사 및 현장의 수처리기계 및 각종 산업용 밸브에 대한 설계,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 등이며, 앞으로 3년간 유효하다. [환경일보]

SK C&C, IN스틸 배출가스 감시시스템 수주

SK C&C는 IN스틸 포항공장의 굴뚝배출가스 자동 감시시스템(TMS)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7월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IN스틸 포항 1,2공장의 굴뚝 배출가스량을 24시간 측정한 뒤 관련 데이터로 설비조작실, 환경안전팀, 설비팀 사무실,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 등으로 자동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배출가스 데이터 공유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 환경오염 사고 예방, 사

“

최근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청정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수익구조 개선에도 성공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료전문업체인 디오는 그동안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었던 도료분야에서 인체에 무해한 무기질 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고 대응, 환경관리정책 수립 자료 확보가 용이해진다 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SK C&C 민철환 홍보과장은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각종 대규모 산업시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친환경시스템 수익에도 한몫

최근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청정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수익구조 개선에도 성공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료전문업체인 디오는 그동안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었던 도료분야에서 인체에 무해한 무기질 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회사측이 지난 2001년 개발에 착수, 2년여에 걸친 연구끝에 개발한 무기질 도료는 기존 유성·수성페인트와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친환경 도료다.

이에 힘입어 디오는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주문량 증가에 따라 올해 매출을 3040억대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네오팜은 최근 기존의 염소계 세정제의 단점을 보완한 수계와 준수계 세정제를 개발, 생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은 기존 세정제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세정제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고 폐기물 발생을 100% 개선한 친환경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세정제 수입에 막대한 지출을 해 온 회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억원, 올해 10억원, 2004년 20억원 등의 세정제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인 애경유화도 페인트와 도료, 가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폐액의 유효성분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이타콘산 수입 대체효과로 연간 15억원 등 매년 22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3100여톤에 이르던 무수프탈산 폐기물의 60%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귀호 박사는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소벤처기업에서 청정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생산시스템 설비 구축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기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